

STORY 근대 문화의 기록장 '종로 모던' 장군의 아들

김두한 “타락한 정권 응징” 국회서 장관들에 오물 투척

김태균 문화평론가

불속 찾아온 해방, 그리고 소련군과 미군의 분단 점령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칼바람 부는 세월. 온전한 정신으로 못살 판, 풍류 바람을 타고 한바탕 갈춤이라도 취야 할 상황이었다. 타락한 시대 타락한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소설(小說)이라고 게오르그 루카치는 말한다. 북방에서 밀고 오는 공산주의와 남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협공을 하니 죽을 판이다. 소설가 김동리는 “좌우간의 좌우”를 논하며 다음의 말을 한다.

만약 토지개혁과 주요 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좌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 좌익이요, 민족 해방과 완전 독립을 갈망하는 것이 우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 우익일 것이다. 조선의 소련 변화와 거부를 우익이라면 우리는 모두 우익이어야 할 것이고 조선의 미국 식민지 배격을 좌익이라 하면 우리 모두는 좌익이라 할 것이다.

정확한 실재도 없이 좌우라는 이상을 택해야 하는 타락한 시대에 ‘잡’을 추구하는 것. ‘이인은 그의 믿음과 더불어 산다’는 말밖에 없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광란의 시대가 해방과 분단, 전쟁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주인과 노예를 거부하는 동화쟁이 수운 최재우의 칼 노래 칼춤, 검검(劍劍)을 한 판 부를 판이다.

때가 왔네 때가 왔네 다시 못 올 때가 왔네. 만년에 하나 날가 말가 한 대장부가 다시 못 올 때를 만났으니,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어찌 할 것인가-

1954년 종로서 민의원 선거 무소속 당선

에라 쉬- 모든 것을 부셔 버리듯 칼춤 추듯 김두한은 타락한 시대에 “똥이나 쳐 먹어라 이 새끼들아” 일갈하고 파란의 생을 접는다. 1966년 9월 16일 삼성은 “한국비료주식회사 비료공장 건설자재를 수입한다”며 사카린 원료 58t을 밀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다. 김두한은 바로 9월 21일 한정식 요정 오진암에서 회식 후 비장의 결투를 준비한다. 바로 22일 정기국회에서 연단에 오른다.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경제부총리, 민복기 법무장관, 김정렴 상공장관을 앞에 두고 “오늘날 삼년 몇 개월 동안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하고 국민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하는 이 내각을 규탄하는 국민의 사카린 을시다. 고루 고루 맛보아야 알지”라며 김두한은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에서 가져온 똥을 국무위원들을 향해 퍼부었다.

김두한은 집으로 돌아가며 “이보소, 내가 똥물을 던진 것은 말이요, 장관들 개개인한테 던진 것이 아니라 헌정을 무시하면서 밀수사건을 비호하는 제 3공화국 정권에 던진 거란 말이요”라고 당당히 말했다. 헌정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국회 똥물 투척 사건은 타락한 시대, 타락한 정권에 대한 정당할 칼 노래 칼춤이다. 북두칠성의 사나이 김두한은 이 사건 후 유신정권의 철폐를 맞고 죽는다.

‘김두한 자서전’을 따라 그의 행장을 본다. 김두한은 어린 시절 지금의 광고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한다. 그때 조선극장에서 싸움 영화를 즐기다 샌드백을 치고 역기를 하며 체력을 기웠다. 파고다 공원 담장을 왼손 하나만 잡고 훌쩍 몸을 정도의 체력 소유자였고, 종로를 네 등분했던 신마적, 구마적, 몽치, 사스를 차례로 겪은 뒤 우미관을 차지하며 ‘종로의 주막’이 됐다.

일제 말 김두한은 징용을 피해 ‘경성특별지원 청년단’을 만든다. 서울만 3000여 명, 전국적으로는 2만 명에 이르는 청년 대군 조직이었고, 그는 이를 내세워 반공(反共) 대열에 앞장선다.

해방과 함께 좌우익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판에서 반민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백의민족이

1966년 정기국회서 회심의 한판

“장관 개개인 아닌 3공화국 향한 것” 파고다공원서 가져온 똥물 퍼부어

뜨거웠던 반일-반공 활동

국회서 친일 장관들 불신임안 제출 6·25 뎀 학도병들과 포항전투 참전

사는 이 땅을 공산주의 종주인 구(舊)소련의 연방으로 만들 수 없다며 공산주의 타도, ‘타공(打共)’ 작전을 치열하게 벌인다.

대한민주청년총연맹(민청)을 결성, 백색테러를 감행해 180여 차례 무자비함을 선보인다. 이어 미군정에 잡혀 사형선고를 받은 뒤 형무소 수감 중 1947년 정부수립 후 풀려난다.

한국전쟁 때 김두한은 자신의 조직과 학도병을 이끌고 포항전투에 참여한다.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 때 미군을 상대로 임금 쟁취 투쟁을 한다. 그때 부산 앞바다 20리 전방 수백 쌍의 기동선을 본다. 일본 도피를 꾀하는 정부 고위층과 사회 유력인사들로 이루어진 민족 모리배들의 행태에 분노하며, 강제로 기동선 1대를 징발하고 이들의 금품을 털어 조국의 운명을 거는 전투에 사용한다.

그리고 부산 광복동 고급 세단이 주차된 ‘늘봄 댄스홀’에 쌍권총을 차고 들어가 전쟁에 아랑곳없이 쌍쌍이 춤을 추며 육체의 향연에 도취된 판을 열고 나서 “또 다시 국가와 민족을 망각하고 춤추려 다니는 년 높은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켜 버린다”고 총 쏘며 외쳤다.

전쟁 후 1954년 서른여섯 살 나던 해 김두한은 3대 민의원 선거에 종로을(乙)구에서 무소속 당선된다. 상대 후보들이 “김두한은 소학교 2학년 밖에 못 다닌 무식쟁이에 주먹 대장”이란 공격에 “내가 주먹 대장이지만 약자나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며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 같이 나를 희생하겠다”고 외치며 국회에 입성한다.

자유당 정권에서 김두한은 친일파 타도 칼춤을 춘다. 그는 국회 연단에 순국선열 영정을 내걸고 장경근 내무장관을 규탄한다. 국회 속기록의 내용이 다.

“장경근은 왜정 때 대표적 친일을 하고 해방 후 국민방위군의 수많은 청소년을 아사, 병사시키고 거창 산청 하동 등에서 죄 없는 양민을 학살했고, 3.15부정선거에 부정 불법 선거를 조작하고 온갖 궤변으로 자유당 정책을 인출하고 이정재, 유지광 강패를 시켜 장충단 집회를 방해하고 배후 조작하였으니 민주주의의 기본 자유의 하나인 집회를 방해하는 민주반역자로 역사에 고발한다.”

연이어 김두한 의원은 이익홍 내무장관 불신임안을 낸다. “이 장관, 당신은 일제 앞잡이, 왜정 경찰 출신으로 민족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일제에 아부 근성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제왕으로 알고 맹종하는데, 민주정치에 역행하여 각종 선거에 불법 간섭과 강압을 능사로 대한민국을 일본제국으로 착각하는 당신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일갈하며, 장면 부통령 피습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내무장관 불신임안을 내지만 또 부결된다.

고문 후유증에 석방 뒤 사람 못 알아봐

그리고 인촌 김성수를 친일로 모는 강세항 의원에 맞서 “친일한 것은 당신이요. 일제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일본 놈들에게 아부한 자가 적반하장 아닌가”라며 아예 자유당 총재를 향해 “해방 후 민족 운동가나 독립투사는 모조리 제거하고 일본 놈의 경찰 밀정을 해 먹던 놈이나 애국지사를 탄압하던 민족반역자 친일파만을 두든, 독재의 아성을 쌓고 간계 잘 부리는 악질 간상 모리배들만 살려니 친일 민족반역자 두목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로써 이 대통령 모욕죄로 징계에 회부된다.

4·19로 민주주의가 잠시 푸른 하늘을 보이는 듯 했으나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김두한은 애국단을 결성한다. 그리고 1965년 서울 용산 보결 선거에서 한독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다. 김두한은 국회 첫날 신상 발언을 통해 제3공화국 권력자를 향해 포문을 연다. 그러나 1966년 이른바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을 엮어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 위반으로 구속된다.

구속 18일 만에 풀려 나왔지만 중정의 흑독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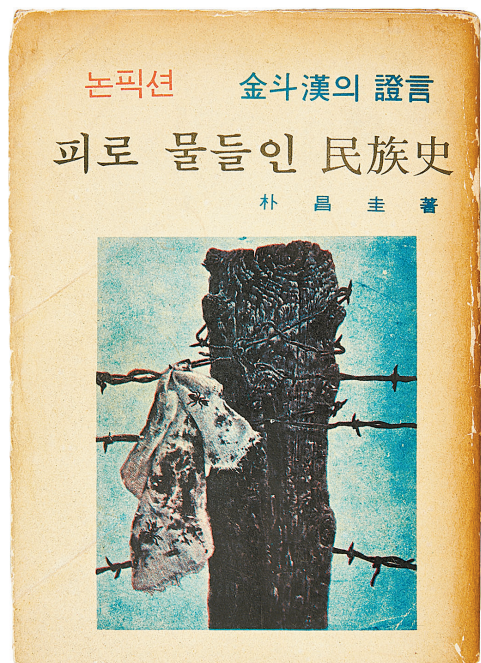


1966년 9월 22일 ‘국회 오물투척 사건’ 현장. 파고다공원에서 가져와 신문지로 포장한 오물을 뿌리기 직전 국무위원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는 김두한 의원. [중앙포토]

문으로 김두한은 넋 나간 표정으로 “자백을 강요당하며 호된 고문을 받았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풀려난 지 8개월, 무도한 정권을 향해 회심의 한 판을 준비한다. 국회 똥물 투척 사건이다. 국회 모독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되고 수감 3개월 만에 고혈압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얼마나 흑독한 고문

을 받았는지 석방 뒤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이 빠져 있었고, 이빨도 다 빠졌다 한다. 죽음이 바람처럼 부는 시대 제 정신이던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김두한의 증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피로 물들인 민족사’(박창규 저, 민국출판사).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